

자비와 지혜로 한·일 불교종립학교 자매결연

미래불자의 꿈 펼치길

한국과 일본의 불교종립학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교사와 학생들을 교류하기로 했다. 학교법인 정광학원(이사장 천운)은 8월 24일 광주 정광고 이사장실에서 일본 이시가와현 가나자와시에 소재한 오야마다이(尾山台) 고등학교와 '한·일 학교 교류 조인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광학원 이사장 천운 스님, 김영희(정광고), 정인영(정광중) 교장 등 정광학원 관계자와 일

시에 한·일 양국의 불교종립학교가 교류하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다"며 "종립학교 설립 이념에 따라 부처님 자비정신이 전 세계에 퍼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일본 타카시 교장도 "같은 불교 종립학교로서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며 '실질적인 유대관계'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광학원을 대표해 김영희 교장이 오야마다이 학교에 '부모은중경 병풍'을 기증했다.



광주 정광고등학교와 일본 오야마다이 고등학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교사와 학생들을 교류하기로 했다.

본에서 온 니시다니 타카시(西谷隆) 교장 등 오야마다이 고등학교 교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국 고교 교장은 교사와 학생들의 교류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국제 감각을 익히며 △수업지도에 필요한 자료교류를 하기로 조인문을 체결했다.

또한 실무자회의에서 양측은 학교 홈페이지에 상대 학교 홈페이지를 연결해 학생들끼리 이메일을 교류하고, 방학을 이용해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 직접 방문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교류방안을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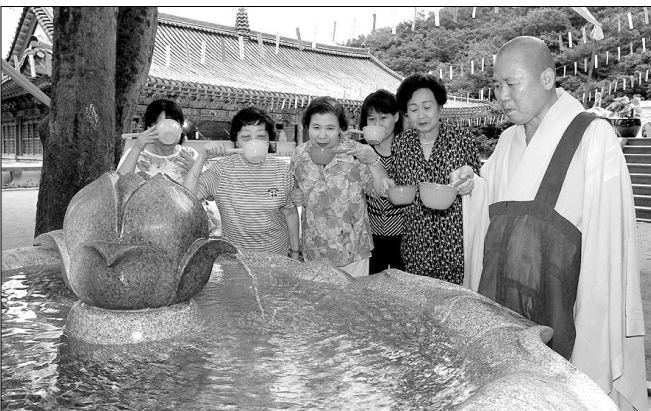
조인식에 앞서 천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화

한편 이번에 정광고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오야마다이 고등학교는 1922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이념으로 혼간지(本願寺)에서 설립한 불교 종립학교이다. 전교생은 매일 아침 강당에 모여 기도도 학교생활을 시작하며, 남녀 고교생 850여명이 재학중이다.

학교법인 정광학원도 1946년 백양사 만암 스님이 호남지역 5개본사로 부터 지원받아 설립하였으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있다. 현재 남녀 중고생 19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글·사진=이준엽 기자

삼각산에 사자후 '쩌렁쩌렁'



주지 혜자 스님이 도선사 신도들과 함께 최근 완공한 연꽃수석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주지 혜자는 9월 8일 7관세음 33일기도 입재에 맞추어 큰스님 14명을 한자리에 초대하는 '고승 대덕 초청 대법회'를 10월 11일까지 봉행한다.

이번 법회에 초대되는 14명 큰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경국사 회주 인환 스님, 도선사 부조실 현성 스님, 조계종 전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 가산불교문화원장 지관 스님,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동국여경원장 월운 스님, 문수사 조실 혜정 스님, 전 포교원장 암도 스님, 중앙승가대학교장 종범 스님, 해동선원 조실 성수 스님, 도선사 회주 혜성 스님,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 등 14분이다.

가제2의 도약을 한다는 북한 아래 각종 불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발맞추어 신도들의 신행활동 정립과 신앙심을 고취시킬 필요도 있어 이번 법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부터 도량 재정비 불사를 추진해온 도선사는 8월 16일 반야굴 준공 및 봉안 법회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 명부전 앞 연꽃수석, 30일 윤장대 조성 봉안 점안식을 봉행했다.

도선사 고승초청 대법회 윤장대·반야굴·수곽 완공

이와 관련 혜자 스님은 "도선사 강유신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북한산 노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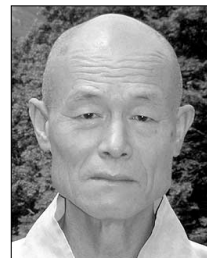
다이나믹한 문화도량

"문화포교는 사람이 사람과 가까이 다가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북한산 노적봉 아래 위치한 노적사 주지 종후 스님(사진)은 평소 힘쓰고 있는 문화포교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

문화포교를 서원으로 세운 스님과 그 뜻을 함께 하는 신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합창단, 성지순례, 어린이 여름볼고학교, 불교교양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적사는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30여 년 전만 해도 노적사는 찾아볼 수 없는 방치되다시피 한 절이었다.



재미있게 교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재도 직접 만들었다. 수강생들이 예습을 충분히 해와서 강의 시간에는 묻고, 답하고, 토론이 위주가 된다. 그래서 수업이 효율적이고, 학습효과가

커 신도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고

노적사의 또 다른 특징은 신도회의 활동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평신도회', '청림정각회(거사들의 모임)', '지정불교학교, 불교교양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적사는 언제나 활기

다. 신유신 회장은 1977년 '불교교양대학'의

강의도 함께 들으며 신심을 함께 키우고 있다"며 "동참 회원들도 꾸준하게

앞으로 노적사는 요사채, 종각, 선수행실, 명부전 등의 불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수음악회, 어린이 북한산 성지순례 등을 추진해 포교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

그것은 종후 스님이 서원한 문화포교의 방편이며, 지역 불교 흥흥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031)353-5016

특히 청림정각회(회장 신유신)는 활동이 활발해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특론 위주의 효율적 수업방식 큰 인기

청림정각회·지정회 등 신도회 특색화

다. 신유신 회장은 1977년 '불교교양대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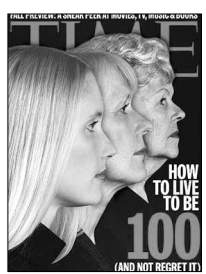
강의도 함께 들으며 신심을 함께 키우고 있다"며 "동참 회원들도 꾸준하게

앞으로 노적사는 요사채, 종각, 선수행실, 명부전 등의 불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수음악회, 어린이 북한산 성지순례 등을 추진해 포교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

그것은 종후 스님이 서원한 문화포교의 방편이며, 지역 불교 흥흥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031)353-5016

'100세 가능하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마가렛 델 여사. 운전면허증에 나온 대로 그녀의 나이는 96세다. 그러나 그녀는 고령의 나이에도 청장년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할리 데이비슨' 로고가 새겨진 야구 모자를 쓰고 다니며 70여 노인 친구들의 이동을 돕는 '지정 운전사'다. 지난 겨울 폭설에는 차를 끌고 나오기 위해 삽으로 집 앞의 눈을 손수 치우는 건강을 과시하기도 했다. 지금도 매일 아이들에게 주기 위한 웃을 만들기 위해 글

타임지 최근호, 비법 공개

입없이 뜨개질을 하며 테니스를 즐긴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8월 22일자)>은 100세가 넘도록 잔병 없이 살아가는 장수 노인들에 대한 몇 가지 연구 사례를 통해 장수 비법을 공개했다.

장수 연구의 권위자 보스턴대의 토머스 펄스 박사는 일본 오키나와의 유명한 장수촌 마을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100세 이상 장수 노인 가운데 90%가 92세까지 자식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식단을 짜는 것도 중요했다. 미국 국립 건강연구소(U.S. National Institute of

원만한 대인관계 중요, 금연·小食 등 수명 8년 연장

Health)는 오키나와 장수촌 세이류 도구치(103) 씨의 식단을 조사한 결과, 저지방, 저염분, 섬유소가 많고 항산화이 탁월한 야채와 과일을 먹고 있었다. 또 오키나와 장수촌 사람들은 전통적인 사회 공동체 속에서 원만한 가족·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치매나 기타 노인병에 걸리는 사람의 비율도 훨씬 낮았다.

미국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지방과 열량을 함께 즐기는 다이어트법'의 효능도 증명됐다. 또한 오키나와 장수촌 노인들은 대부분 '소식(小食)'을 하고 있었다. 노인 대부분이 포만감을 느끼는 수준인 정량의 80% 정도의 식사를 하며, 하루 섭취 열량은 1천800칼로리 미만으로, 미국인 평균

2500칼로리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다.

청결한 생활도 중요한 장수 비결 중 하나다. 금연, 금주, 카페인 음료를 피하는 미국 유타주 '제의 안식일 재림파' 신도들의 평균 수명은 미국인 평균보다 8년이나 길었다.

조지아대학 노년학 연구소는 1988년부터 장수자들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 4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백수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픈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자기만의 정원을 가지고 있었고' '죽을 때까지 자신들이 먹을 채소를 기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강유신 기자



바위 아래 공간에 마련된 미륵전에서 기도중인 노적사 신도들.

천하제일의 운명의 등대 천신의 안내서

육경신을 통한 저자 74세

八卦秘傳

팔괘비전

閱易神書

열역신서

도서출판 새로운문화사

增補版 증보판

天醫仙道 太宗仙師 楠宮 金永生 編著

제1편
운명의 예언

人生은 배우 운명은 각본 생활은 연출

저자는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 터인데,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인명을 구하고 구천에 방황하다 후손의 몸에 빙의되어 사육편정을 조성하는 영혼에게 사면령을 내려 연화장계로 보내라는 천명을 받고 전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 팔괘비전 열역신서 증보판을 낸다. 미구에 닥칠 대 예언서다.

제2편
四象醫學 八象分類秘法

사상의학의 숙원인 팔상분류법을 완성공개.

체질에 맞는 이로운 식품과 해로운 식품을 분류했다.

같은 체질이라도 열 체질과 한 체질이 있고 장부가 다르기에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太陽人 I, II型
太陰人 I, II型
少陽人 I, II型
少陰人 I, II型

제3편
生老病死와 사후영혼의 실상을 밝혔다

건강을 원하거나 행복을 원하거나 천문을 열어서, 평생희비 50만원에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천문이 열리면 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유입되면서 손과 손 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 받고 천상 신명계로 떠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거뜨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려갑니다. 건강과 행복을 찾는 천상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업장을 풀고 수명을 뛰어 넘으라

책값 30,000원
직접 오셔서 책을 구입하는 분에게는 운명상담은 물론 8상체질 분류도 무료로 해 드립니다.

주문 ☎ : 02)2216-6278 HP : 011-9803-4600

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